

광주비엔날레 조용한 폐막...관객도·이슈도·감동도 없었다

94일간 최장기간...“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갈증 씻어” 박서보 예술상·소시지 희화화·일베 이미지 사용 논란도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94일간의 일정을 9일 마무리했다. 광주비엔날레는 9일 오후 6시30분 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도슨트, 운영요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열린 94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국제적인 미술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날레는 이슈 면이나 담론, 전시 구성 등에 있어 감동이 없는 무색무취의 비엔날레였다는 평가가 미술계 일각에서 나온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를 내걸고 31개국 43도시 79작가의 340여 작품이 선보였지만 임팩트 있는 작가의 작품은 별로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전시장은 약 50만 명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문화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관람객은 약 10만 여명 안팎으로, 실제 관람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문화계 일각의 전언이다. 이 같은 광주비엔날레의 침체적 국면은 개막 후 12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최근 500만 명 관람객을 돌파하는 등 순풍을 이어가는 순천만정원박람회와 흥행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성격이 다른 두 국제적인 행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위상과 명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술계 인사는 “이번 비엔날레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비엔날레 주제가 ‘물결 위 우리(We, on the Rising Wave)’였는데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유사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 세계적인 거장이나 대가들의 임팩트한 작품을 볼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미술계 A씨는 “에드워드 호퍼나 김환기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러 가는 것은 대가들의 작품을 실감하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에 비해 관객들에게 광주비엔날레는 알려지지 않는 작가들의 데뷔무대로 전락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분석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는 등 국제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 년 간 이어진 비엔날레 내부 조직 문제, 정체성 미흡, 구태의연한 운영 등으로 예전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개막 직전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한 홍보영상이 비엔날레를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또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페미니즘 비하와 이와는 별개로 흡폐하지 배너 삽화가 일베 인증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논란 등과 겹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이 호주 마오리족의 직조 기술을 모티브로 한 마티아호 컬렉티브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쳐 비난이 일기도 했다. 관객들의 무관심은 김건희 여사 개막식 초청 건(광주일보 2023년 4월 10일자 2면)과도 맞물려 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전시 후반기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지만 개막 초반 초청 등과 연계된 이슈가 부상하면서 전시 자체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는 게 미술계 인파의 지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야심차게 추진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도 전시기간 논란에 휩싸였다. 1회 수상자(임정순 작가의 ‘코없는 코끼리’)를 선정하듯 막을 내린 박서보 예술상은 결과적으로 공청회 등 지역 미술계와 충분한 논의와 교감 없이 이루어진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미술 축제로서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한 각 지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관람이 잇따르는 등 문화예술 교육 현장이자 필수 코스로서의 명성을 확인한 점도 수확이다. 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도 두드러졌다. 휘트니미술관의 아담 D 웨인버그 관장, 테이트 모던의 프란시스 모리스 관장, 카스텔로 디 리블리 현대미술관의 캐롤린 크리스토프-바카기예프 관장, 모리미술관의 마미 카타오카 관장 등이 찾았으며, 영국 테이트모던 후원회, 뉴 뮤지엄, 워커 아트 센

터 등의 관계자도 다녀갔다. 특히 일부 파빌리온이 밀집된 양림동은 새로운 문화 관광의 장소로 부상하기도 했다. 캐나다 파빌리온의 이강하미술관, 프랑스 파빌리온의 양림미술관, 스위스 파빌리온의 이아남 스튜디오 등 양림동 일대는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시감독인 이숙경 예술감독이 맨체스터 대학의 휘트위스 미술관장으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일본 참여작가 모리 유코가 내년 열리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된 점도 일말의 성과로 꼽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암전통문화대상에 박지윤 명창

상금 3000만원, 오늘 시상식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그룹이 후원하는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9일 제13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로 박지윤(사진) 명창을 선정, 발표했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국화, 국악, 무용, 공예, 기악 등 전통문화 5개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상이다. 수상자 박지윤 명창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향후 작품활동에 대한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10일 오전 11시 힐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국악과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는 “호남 소리의 정수를 계승하고, 남도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 공헌할 것이 기대돼 박지윤 명창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암 출신인 박지윤 수상자는 6살에 판소리에 입문,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제33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2006), 제3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차하(2004), 제1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1993) 등을 수상했다. 조상현 선생에게 판소리 4바탕을 사사받고 보성소리를 계승하고 있으며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 등 6회의 전바탕 완창발표회를 가졌다. 또 1997년부터는 본인의 판소리전수관을, 2014년부터 판소리예술단 소리화를 창단해 이 지역 후학 양성과 대중화에 앞장 서고 있다.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관 화천 창업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예향에 걸맞는 호남지역 전통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화천그룹이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그리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학술 및 연구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화가 박종서·박문중, 국악인 주소연, 공예가 최석현 등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예술인들이 서암전통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서암전통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 대표 클래식 오디션 ‘금호주니어 콘서트’

2월 오디션 선발 16명 연주자 11월~8월 24일 무대에

클래식 주니어를 길러내는 산실 역할을 자처해 온 ‘제14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가 11월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열린다. 2010년부터 광주유스퀘어문화관과 금호문화재단이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능있는 청년 음악전공자(만26세 이하)를 데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명실상부 ‘지역 대표 클래식 오디션’을 자임하며 13년간 청년 음악예술인 167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무대에는 지난 2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6명의 연주자들이 오를 예정이다. 콘서트의 막은 11일 비올리스트 김예린(추계예대 4학년)이 연다. 광주예술영재교육원과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김씨는 앙리 비외탕, 막스 브루흐, 벨라 바르토크의 비올라 연주곡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12일 소프라노 김은지도 실력을 선보인다. 김씨는 전남예술고등학교,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제62회 호남예술제 은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정윤성 음악축제 신인 음악회 등에 출연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실력을 축적해 왔다. 13일에는 박민(한예중)이 무대에 올라 바이올린을 탄주한다. 광주예술고 수석(실기) 졸업 출신으로 2016년 금호주니어콘서트 독주회, 2014년 호남예술제 금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공연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청년예술인들이 자아내는 공연의 뜨거운 열기는 8월에도 계속된다. 8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비올라 김예린 트럼펫 박민솔

공부한 박민정이가 플루트를, 9일에는 이화여대 3학년 박찬솔이 트럼펫을 부는다. 이어 소프라노 이소윤(한예중 4학년, 10일), 바이올리니스트 서지수(한예중 영재교육원, 17일), 피아니스트 박주은(전남대 졸업, 22일)의 무대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아울러 쟁쟁한 10대 참가자들도 눈길을 끈다. 광주예고 3학년 재학생인 양세현은 2017년부터 호남예술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3일 무대에서 하이든, 베토벤의 소나타와 쇼팽의 피아노 선율을 연주할 계획이다. 예원학교 3학년의 강에서 양도 주목받는 신예다. 올해에만 제51차 금호영재 콘서트 합격, 제6회 동아주니어 콩쿠르(2등), 연세 윈드 콩쿠르(1등), 제35회 음악제 콩쿠르(1등)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티켓 1만 원, 현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구매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일신재집’ 완역 학술대회

13일 국립광주박물관

화순 출신 정의림(1845-1910)은 노사 기정진의 3대 제자로 을미사변 때 의병에 참여한 인물로 ‘일신재집’을 남겼다. 또한 그는 노사학 계승 및 위정척사사상을 실천한 선비이기도 하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전득염)은 ‘일신재집’ <사진>완역 기념으로 제6회 호남문화 심층연구 학술대회를 연다.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광주박물관 소강당. “‘일신재집’을 통해 일신재 정의림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의림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고 무엇보다 이를 매개로 콘텐츠 활용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상필(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박학래(군산대)가 ‘일신재 정의림의 학문 활동과 노사 학맥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이영숙(경상국립대)의 ‘정의림의 시에 나타난 한말의 강회 활동’, 이원석(전남대)의 ‘정의림과 남평사시’, 이항준(전남대)의 ‘정의림과 외필논쟁’, 조우진(전남대)의 ‘노사학파 심포 문형의 학술 관계망’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종합토론에는 강정화(경상국립대)을 좌



장으로 김현진(순천대), 주다감(원광대), 김태완(전남대), 정명수(조선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전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의 수집, 관리 등의 연구성과를 집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호남진흥원은 앞으로도 호남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